




**HAL**  
open science



Daeyeol Kim

► **To cite this version:**

| Daeyeol Kim.  . (Critiques des cultures religieuses), 2010. <halshs-01245997>

**HAL Id: halshs-01245997**

**<https://shs.hal.science/halshs-01245997>**

Submitted on 6 Jan 2016

HAL is a multi-disciplinary open access archive for the deposit and dissemination of scientific research documents, whether they are published or not. The documents may come from teaching and research institutions in France or abroad, or from public or private research centers.

L'archive ouverte pluridisciplinaire HAL, est destinée au dépôt et à la diffusion de documents scientifiques de niveau recherche, publiés ou non, émanant des établissements d'enseignement et de recherche français ou étrangers, des laboratoires publics ou privés.

Copyright

## 성현(聖顯)으로서의 중국 표의 문자와 도교의 상징

김대열

Institut National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  
France

학생 시절에 어느 개론서에서 서양 종교는 "계시"의 종교이고 동양 종교는 "깨달음"의 종교라는 구분을 읽은 적이 있다. 단순한 설명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 같은 것을 표현하는 두 가지 정식이 있을 때, 보다 더 단순한 것이 더 진리에 가깝다는 이론도 있다. 자연 세계처럼 가상으로 또는 최대한 이상화시켜서 관찰하거나 연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이론이 상당히 유효하다. 그러나 인간과 사회의 경우엔 그렇게 이상화시키는 것 자체가 어렵다. "서양 종교" 혹은 "동양 종교"라 불리는 것도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각 매우 다양한 심지어 상이한 요소들이 자리하고 있다. 차라리 복잡한 그 내용이 오히려 비슷하다고나 할 수 있지 않을까? 동양과 서양을 종교의 차이를 통해서 딱 썰듯 썰듯 잘라 나누어 버린 위의 구분이, 서양엔 "깨달음"의 종교가 없고, 동양엔 "계시"의 종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여기엔 충분히 반론의 여지가 있다.

### 이의성(二義性)으로서의 상징

"계시에 따르는 회심"과 "깨달음"은 둘 다 성(聖)의 상징(象徴)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공통점마저 있는 듯하다. 성의 상징은 인간의 자아 인식의 근본이자 내면의 장(場)으로서의 언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상징은 인간의 깊이를 드러내고, 의미를 넘쳐 흘러나게 하고, 영적으로 교감하게 하고, 삶의 깊이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언어이다. 상징의 대상, 즉 상징을 통해서 파악되는 것은 진리이다. 과학에서의 진리가 객관화된 실재라면, 상징은 상징된 것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는 관계를 형성할 때 진리성을 확보한다. 그래서 상징의 힘은 과학적 언어로서의 기호와는 다른 것이다. 과학적 기호가 인간 내면과 연결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위적인 것인 반면, 상징의 경우 그 연결의 힘은 우선 상징 자체에 있다.

상징이 지시하는 것과 지시되는 것의 연결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저절로 피어 오르는 것이다. 상징은 1차적인 감성적 의미 속에 그것을 초월하는 제 2의 비감성적 의미를 내포하고, 이 후자는 전자가 보여주지 못하는 존재—이념, 실체, 가치 등—의 차원을 드러낸다. 이렇게 상징은 제 2의 의미로 향해 있다. 또한 상징에서는우의(寓意)와 달리 제 1 의미와 제 2 의미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꽃은 내 눈 속에서 아름다움으로 피어나지만, 이 아름다움도 꽃이란 시각적 대상이 없으면 안 된다. 꽃과 나와의 융합 속에서 비로소 아름다움이 생겨나는 것이다. 감각적 대상인 백합꽃이 비감각적 가치인 청정(淸淨)함으로 곧장 유추되는 것이 아니다. 청정이라는 가치는 그 꽃을 보는 인간의 눈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여기에 상징의 애매함과 불투명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은감성계(感性界)와 이념계(理念界)를 연결시켜주는 특수한 힘이 있다. 그래서 상징을 통해서 감성이 이념에 도달하고 이념이 감성으로 내려온다고도 한다. 두 세계를 연결하는 상징의 본질적인 힘은, 바로 이렇게 나의 내적인 힘에 의해서 내가 무언가에 동화되는 것에 있다. 살아 있는 상징은 나를 초월로 이끌고, 그래서 나는 나의 참된 근원, 근거로 인도되는 느낌을 갖는다. "말씀의 계시"이든 "진리의 깨달음"이든 모두 상징이 지닌 힘에 참여하려는 희망의 표현이란 점에서는 동일한 것이 아닐까?

### 성현(聖顯)<sup>1</sup>의 시각 언어

성(聖)을 드러내는 상징 형식의 특성을 구술 언어<sup>2</sup>와 문자 언어<sup>3</sup>로 구분해 볼 수도 있다. 사실, "서양 종교"라 불리는 곳에도 "동양 종교"라 불리는 곳에도 청각 언어적인 요소와 시각 언어적인 요소가 모두 섞여 있다. 다만, 우선 순위와 "함량"의 차이가 있고 그 겹어온 궤적이 다를 뿐이다. 도교에서는 문자 언어를 위주로 하는 계시를 찾아볼 수 있다.

선사 시대의 중국에서 국가 행정은 종교와 점술에 의존하고 있었다. 왕은 이 세상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저 세상의 의견, 즉 신들의 의지를 점술을 통해서 물었다. 주지하다시피 갑골 문자는 지금까지 알려진 중국 문자 가운데 가장 오래된 형태이다

<sup>1</sup> 종교적 궁극적 가치의 현현(顯現).

<sup>2</sup> 들리지 않는 것을 들리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

<sup>3</sup>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

(그림 1 과 2). 답을 얻고자 하는 질문과 가능한 답을 거북 등껍질이나 소의 견갑골에 문자로 새기고 나서, 균열이 생기겠끔 흠을 판 후, 그 흠을 잉걸로 지지면, 표면이 파열되면서 균열선이 생긴다. 이것이 점술가의 요구에 응하는 조상들의 답변으로 해석되었다. 고대 중국의 상형 문자에서 우리는 계시 매개체로서의 기호와 표의 문자 사이의 연관을 관찰할 수 있다. 이 원초적 "불지짐"의 행위에서, 바로 신령들 자신이 그 점술 도구 위에 도래해서 점술가가 (듣고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보고 읽어낼 자취를 남기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성현(聖顯), 즉 초월적인 "점술 표기"와 국가의 공식적 "점술 표기"의 관계는 "말"을 거치지 않는 직접적이고 즉시적인 것이었다. 달리 말하자면, 중국의 상형적(象形的) "표기"는 "말"을 옮겨 적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계의 실재를 직접적으로 지적하기 위한 "상징"과 같은 것이었다.<sup>4</sup>

중국 문명 초기에 "그리기" 혹은 "쓰기"는 이렇게 신들의 세계와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었다. 그 "쓰기 전문가", 즉 필경사(筆耕士)들은 보이지 않는 무시무시한 능력에 사로잡혀 이 신들의 세계에 대한 무한한 숭경을 경험했을 것이다. 이 사회는 의례에 철저히 구속되었고, 이 "쓰기"가 지닌 신성한 힘 때문에, 행동에서뿐만 아니라 사고 방식에 있어서도, "쓰기"의 세속적인 사용은 오랫동안 배제되었다.<sup>5</sup> 이 그래픽 언어는 차후에 점술 차원에서 벗어나 더 이상 거북의 등껍질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담론을 뒷받침하긴 하였지만, 이 그래픽 담론은 여전히 구어적(口語的) 담론 너머에 머물게 된다.<sup>6</sup>

중국의 그림 문자는 불가시적 세계, 생명의 원초적 상태를 표현하는 형이상학적 도구이기도 하다. 반데어메흐슈에 따르면, 중국 문자의 가장 오래된 원형은 수호 정령들의 상징을 조합한 것, 단순히 부적과 같은 것, 즉 언어학적 분절 없이 나란히 놓이거나 겹쳐진 그림들이었다. 후에 "말하다"라는 뜻을 지니게 되는 "왈(曰)"이라는

---

<sup>4</sup> Léon Vandermeersch 1980, *Wangdao ou la voie royale: recherches sur l'esprit des institutions de la Chine archaïque*, vol. II, *Structures politiques, les rites*, Paris, E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pp. 262-263; John Lagerwey 1986, "Ecriture et corps divin en Chine", in *Le temps de la réflexion*, 1986, VII, Corps des dieux, p. 281.

<sup>5</sup> Jacques Gernet 1963, "La Chine: aspects et fonctions psychologiques de l'écriture", in *L'écriture et la psychologie des peuples*, Paris, Armand Colin, p.36.

<sup>6</sup> Vandermeersch 1980, *op cit.*, pp. 262-263.

"그림"과 "말로 알리다"라는 뜻을 지니게 되는 "고(告)"라는 "그림"은 원래 각각 "신비로운 글을 바치는 데에 사용하는 성스러운 물건"을 그리고 "신령들에게 글로써 알리는 의례"를 나타냈다. 이 물건과 의례는 도교에서 여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 물건은 "향불을 피웠던 향로"였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sup>7</sup> 잘 알려져 있듯이, 향불을 피우는 것은 신들과 소통하기 위해서이다. 향 연기 모양도 하나의 시각적 표징이다. "신(神)"이라는 문자도 원래는 소용돌이를 그리며 가냘프게 올라가는 향 연기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었다.<sup>8</sup>

이 상형적 표기의 성스러운 "매력"은 도교 전통 내에서 좀더 독특한 표현 방식을 낳게 된다. 초기 표의 문자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 근본적인 사유 방식과의 연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재의 모습, 신(神)들과 영(靈)들의 명칭, 그들에로의 접근 수단, 그들의 몸을 나타내기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쓰기"가 출현한다.<sup>9</sup> 그것은 중국 우주론, 특히 도교의 기(氣)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생명의 원천으로서의 기(氣)는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동시에 우리의 내면을 채우고 있다. 도(道)와 함께, 기(氣)는 단일하고 연속적인 존재들의 집합인 우주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고 여겨졌다. 서양에서는 "숨쉬기", 따라서 "말"을 먼저 연상케 하는 "기(氣)"는 중국에서는 "쓰기"와 더 밀접히 또 우선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우주론적이자 영성적 차원을 지닌 기(氣)의 개념으로부터, 신성화되고 인격화된 기(氣) 개념이 기원후 2세기경에 출현하게 된다. 바로 이 시기에, 한 신성(神聖)이 인간의 영성적 "행정"의 임무를 도사(道師)들에게 부여한다. 그리하여 그의 계시에 기초한 도교 전통 하나가 탄생하고 이 때부터 신성의 세계가 그 기(氣)의 응결을 통해서 드러난다, 계시된다는 생각이 출현한 듯하다. 신격화된 노자인 "노군(老君)"이 바로 그것이고, 이는 우주의 근원인 세 가지 원초적 기(氣) 가운데 하나이다. 이 "노자"는 우주처럼 기(氣)들로 구성된 신성한 "몸"의 가장 탁월한 형태이다. 그 이래로, 여러 형태의 그림들이 기(氣)의 응축, 즉 신성을 표현하게 된다. 즉 우주적 기(氣)의 "계시"인 것이다.<sup>10</sup>

<sup>7</sup> Vandermeersch 1980, *op cit.*, pp. 473-479.

<sup>8</sup> John Lagerwey 1985, "The Oral and the Written in Chinese and Western Religion", in *Religion und Philosophie in Ostasien (Festschrift für Hans Steininger)*, G. Naundorf, K. H. Pohl, H.-H. Schmidt ed., Würzburg, Königshausen und Neumann, p. 302.

<sup>9</sup> Gernet 1963, *op cit.*, p. 35.

<sup>10</sup> Lagerwey 1986, *op cit.*, p. 281.

## 성현으로서의 몸

"몸"은 기능적 복합 구조물이자 자타(自他)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개념을 지니고 있다. 도교에는 다양한 형태의 "신성한 몸"이 있다.

중국에서 "쓰여진 것"은 기(氣)의 몸이다. 도교적 상징들도 거기에 속한다. 아래

『태상인조산진형도(太上人鳥山眞形圖)』(그림 3)는 원초적 기(氣)의 원생지(原生地)를 표현한다. 그림의 둘레에는 글을 읽는 사람을 천상의 맛난 음식이 있는 동산으로 초대하는 글이 새겨져 있다. 이런 종류의 그림은 주로 성스러운 산, 신화적 산을 나타낸다. 즉, 기(氣)로 이루어진 우주, 기(氣)로 가득 찬 "몸-산(山)"의 "진형(眞形)"이다.<sup>11</sup> 『노군입산부(老君入山符)』(그림 4)는 전통적인 도교 부적이고 다섯 종류가 있다. 복숭아 나무로 만든 판자에 붉은색으로 그려진 이 상징들을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집에 걸어두면, 산에 있는 잡신들이 얼씬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 다른 그림(그림 5) 세 개는 덜 자주 사용되지만 기(氣)의 그림과 일반 중국 상형 문자와의 긴밀한 관련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sup>12</sup>

도사 그 자체도 상징이다. 그의 영성적 몸에는 신령들이 깃들 수 있고, 도사는 이 신령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다. 의례를 행하면서 도사는 이 신령들을 자신의 몸 속에 깃들도록 초대한다. 도사는 자기의 몸을 채우는 이 "기(氣)"들의 비밀을 알고 있다. 도사는 고대 중국의 점술가의 직손으로서 선조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상징들을 만들어 낸다. 문자로 이루어진 도교 상징은 구조, "진형(眞形)", 즉 "몸"의 힘을 표현한다. 이 신성한 "몸"과 고대 점술가들이 읽었던 금(卦)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기원을 전후해서 나타난 도교 문헌에서는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조(兆)"라는 단어를 썼는데, 원래 이 단어는 갑골(甲骨)을 불로 지졌을 때 생겨나는 파열 무늬를 가리킨다. 서양의 로고스에 해당하는 중국의 이(理)도 옥(玉)의 무늬임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유는 사물의 모양, 특히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양식이나 구조에 대해 갖는 특별한 관심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중국 종교에서 의례를 중시하고, 중국 사회에서

<sup>11</sup> Lagerwey 1986, *op cit.*, p. 279.

<sup>12</sup> *Ibid.*, pp. 279-280.

"적절한" 행위를 중시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이는 서양의 목적론적 관점, 즉 이상적으로 설정된 궁극 상태에 비추어 행동을 조절하는 것과 대조적이다.<sup>13</sup>

또 도교의 계시 문헌들 가운데 몇몇은 그 자체로서 "기(氣)"의 표징이다. 종종 이들 문헌의 제목은 신들의 이름이나 연단제조방법 이름 그 자체일 때도 있다. 상청(上清) 전통의 경(經)들은 전(前)우주적 존재를 겪은 바 있고, 세계를 구성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원초적 기(氣)에 의해 이루어졌다. 인간들의 손에 들어오기 전에, 이들은 땅이 형성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고형화와 침전의 과정을 겪었다. 세계 생성 이전의 공허(空虛) 속에서 형성된 이들 문헌은 팔방(八方)으로 퍼지는 눈부신 섬광을 지닌, 태양과 달에 버금가는 광채를 지닌 거대한 빛이었다.<sup>14</sup>

중국 문자는 그 각각이 어의소(語義素)인 기호들의 총람이다. 이 표의 언어는 성(聖)의 다양한 형식이 독특하고 풍부하게 발전하는 데에 기여했다. 이를 통해서 "말"만큼이나 "그림"과 문자도 존재와 그 본질을 파악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다.

### 시각적 상징의 우위(優位)

이렇다고 해서 중국의 종교인 도교가 시각적 언어의 종교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도교에서 소리는 쓰여진 것의 음성적 형태, 혹은 거기에 덧붙여진 설명으로서 그 중요성을 지닌다. 신들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진문(眞文)"의 근원적 형태는 우주의 패턴을 드러내는 "천문(天文)"이다. 우주의 태초에 천상의 문자들이 출현하는데 그들은 "빛의 패턴들"이다. 이들이 뒤섞이면 "(우주적) 동굴의 노래"를 자아낸다. 모든 도교 의례에서 부르는 노래들은 바로 이런 "(우주적) 동굴의 노래"인데, 이들은 태초 공간의 자궁 속에서의 (천문(天文)의) 소리 없는 출현을 가리키는 가청(可聽) 기호이다. 소리 내어 외우는 주문도 글의 음성적 형태다.<sup>15</sup> 또한 1 차원적으로 선형화된 의례 텍스트가 담을 수 없는 것은 구전(口傳)으로 전수된다. 이런 점에서도 음성이 도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도교에서는 글 혹은 그림이 소리에 우선한다.

<sup>13</sup> Lagerwey 1985, *op cit.*, p. 304; Lagerwey 1986, *op cit.*, pp. 282-283.

<sup>14</sup> Isabelle Robinet 1984, *La révélation du Shangqing dans l'histoire du taoïsme*, Tome premier, EFEO, Paris, pp. 112-113.

<sup>15</sup> Lagerwey 1985, *op cit.*, pp.303-305.

## 중국 종교사에서의 도교의 일의미(一意味)

라깡이나 데리다에 따르면 인간은 먼저 시각적 지각을 통해서 언어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한다. 아이는 말을 하기 전에 거울에 비친 타자가 된 자신을 알아본다. 즉 "분리된 자아"를 통한 자아 인식은 최초의 균열이고 욕망의 시작이다. 이후 아이는 말을 시작하지만 그의 말은, 상징적 차원으로의 접근이 불가능한 한, 공허하다.<sup>16</sup>

아브라함 전통에서 신의 말씀은 구술 언어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실재"에로 다가가는 접근로도, 인간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수단도 모두 구술적 "말"을 통해서이다. 말을 통해서 사고하고 말을 통해서 사회의 일원이 된다. 이 말씀이 옮겨 적힌 것이 성경이고, 바로 이것이 읽혔다. 도교 문헌은 지극히 "원시적"이어서 인간의 몸을 매개로 해서만 존재 가치가 있다. 그것을 읽는 일은 매우 주관적인 작업, 읽는 이로 하여금 그 글을 통해서 자기 내부를 읽겠끔 하는 일이다. 반면, 성경 읽기는 보다 더 객관적이고 사회적이다. "말씀"은 선포되기를 기다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말씀"은 그 자체가 규율이 된다. 그리고 결국 이 말씀은 지식과 사회 "분열"의 계기를 마련한다. 르네상스, 종교 개혁, 인쇄술의 발달은 종교, 학문, 사회의 새로운 형태들을 가져온다. 그리고 말씀은 다시 모든 종교적 맥락으로부터, 그 통일체로부터 독립하고, 과학과 신학으로 나뉜다. 이 두 분야의 엄밀주의, 직해주의는 종파주의를 낳고, 그것은 자유주의를 낳고, 자유주의는 신의 죽음을, 신의 죽음은 홀로코스트를 낳는다.<sup>17</sup>

중국 역사에서도 이 "분열"은 문자기호(文字記號)가 선형화(線形化)되면서 시작된다. 한 사회 계층은 이 선형의 문자 기호를 채택한다. 다른 계층은 그것이 그들의 "자율성의 시대"에 종말을 고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저항한다. 이 "자율성의 시대"는 바로 『노자』에 나오는 "새끼줄을 묶어 (언어로) 사용했던" 때, 『장자』에 나오는 "그들이 어미는 아나 아버지는 모르는" 때, 즉 완전한 일체의 때를 일컫는다. 그리하여 기원전 4세기경쯤에 다다르면 이 두 계층은 유자(儒者)들과 도사(道士)들로 구분된다. 이 두

<sup>16</sup> *Ibid*, pp. 309-310.

<sup>17</sup> *Ibid*, pp. 310-316.



계층은 이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문자 기호 문명에 속하게 된다. 유자들의 문자 기호는 이제 점점 더 구술화되고 선형화되어 간다. 그들은 시와 말씀, 역사를 적고, 판단하고 담론하기 위해서 문자 기호를 이용한다. 그래서 그들의 주요한 덕(德)은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말"과 "실행"이 그 문자의 구성 요소인) 성(誠)과 ("말"과 "사람"이 그 구성 요소인) 신(信)이다. 그리고 마침내, 기(氣)의 내용이 되는 보다 심층의 구조로서의 이(理)라는 개념을 통해, 중국의 합리주의 담론을 발전시킨다.<sup>18</sup>

반면, 『노자』(56)에서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라고 했듯이, 필경사(筆耕士)들의 점술적 기능을 물려받은 도사들은 말 대신 "진서(眞書)"를 쓰기 시작한다. 말은 진리를 담아 전달할 수 없다는 의혹은 『장자』에서도 보인다. "말은 단순히 불어대는 바람이 아니다. 말은 말하려는 무언가가 있다. 그런데 말하는 것을 보면 모두가 일정하지 않으니, 과연 말하는 것이 있는 것일까? 없는 것일까? 사람들은 그것이 새 새끼들의 지저귀와는 다르다고들 하는데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을까?"(「제물론」) 또 장자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본래 물음으로 돌아가 보세. 자네가 내게 '자네가 어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겠는가?'라고 한 것은 이미 내가 그것을 안다고 여겨 물은 것이네. 나는 지금 이 호수(濠水)가에 서서 그것을 안다네."(「추수」) 즉, 명백히 "보기" 때문에 안다는 것이다. 그래서 도교 전통은 청각적이라기보다 시각적이다. 『장자』는 이상적 인간을 "진인(眞人)"이라 하였다. 이 "진(眞)"자(字)의 중심에 있는 요소는 바로 "목(目)"자(字)이다. 이 진인(眞人)은 곧 진문(眞文)과 상응한다. 그는 "구멍을 막고 문을 닫고"(『노자』 56) "내관(內觀)"을 실행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내부 모습인 "진오(眞吾)"(『노군중경(老君中經)』), 즉 영원의 자궁 속에 새겨진 자신의 "조(兆)"를 관상하는 것이다. 목적론적이 아니라 형태론적이다. 6세기 이래로 오늘날까지 도사(道士)들이 "진인(眞人)"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sup>19</sup>

유자들과 도사들의 별리(別離) 과정은 이천년 가량 걸렸다. 명조(明朝)가 세워질 즈음에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으니 말이다. 그 과정에서 양 진영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sup>18</sup> *Ibid*, pp. 317-318.

<sup>19</sup> *Ibid*, pp. 318-319.

불교의 도전을 꺾어야 했다. 알파벳과 담론의 문명에서 온 불교는 중국 문화에  
구술화와 합리화의 충격을 주었다.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표의 문자를 표음식으로  
사용하였고, 종교적 선전 즉 설교와 경전 복사를 통한 말씀의 전파를 도입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불상(佛像)과 불교 문헌을 복제하기 위해 사용된 인쇄술은 중국에서  
구텐베르그보다 5세기 앞서서 발명되었다. 불교가 중국 경제에 가져온 합리화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구체적으로 보여준 바 있다.<sup>20</sup>

불교에서 충격을 받아 도교도 변하기 시작했다. 도교 의례에 도덕적 설명을 덧붙이고,  
그 의례 순차(順次)에 종말론적 이론을 가하고, 공론에 뛰어 들고, 수도원에서 암송할  
장황한 규율들을 만들어내고, 경문들을 모아 방대한 도장(道藏)을 만들고, 그것을  
복제하여 분포시켰다. 도교가 불교로부터 방편(方便)을 배웠다면, 유교는 불교의  
원리를 받아들인다. 그 결과가 바로 존재론에서 형이하(形而下)와 형이상(形而上)을  
구분하는 송대의 신유교이다. 이 구분의 공간적 차원은 불교가 지니고 있던 토속적  
관념론의 시각적 구분과 관련이 있다.<sup>21</sup>

문화 혁명으로 중국은 청각 언어를 채택하려고 시각 언어를 내팽개쳤다. 그 맥락은  
"문명의 합리화"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도교는 토속 신앙의 대표적인 미신으로  
매도되어 배척 받았다. 그러기 몇 십년, 인간과 사회의 새로운 이해를 지닌 학자들, 특히  
인류학자들은 몇몇 남지 않은 도교 전통들이 모두 사라지기 전에 기록으로 남기려고  
오늘도 중국의 방방곡곡을 찾아 다닌다. "미신"으로 버려졌던 그것이 이제는, 더도  
덜도 아닌, 독특한 하나의 사유 방식이자 표현 방식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오늘날 일의적(一義的) 언어를 통한 합리화, 형식화, 규범화, 효율화가 인간 존재의  
깊이와 넓이를 상징하는 다의적(多義的) 언어를 상실하게 했다고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 언어의 엄밀성의 댓가로 얻은 것은 언어의 평판화(平板化), 공허화(空虛化)이다.  
인간 존재의 깊이, 삶의 깊이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언어를 다시 살려내는 일을

---

<sup>20</sup> *Ibid.*, pp. 319.

<sup>21</sup> *Ibid.*

해야 한다면, 바로 상징의 문제가 오늘날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일 것이다.  
시각적 언어와 상징의 재발견 또는 재인식의 필요성도 같은 길목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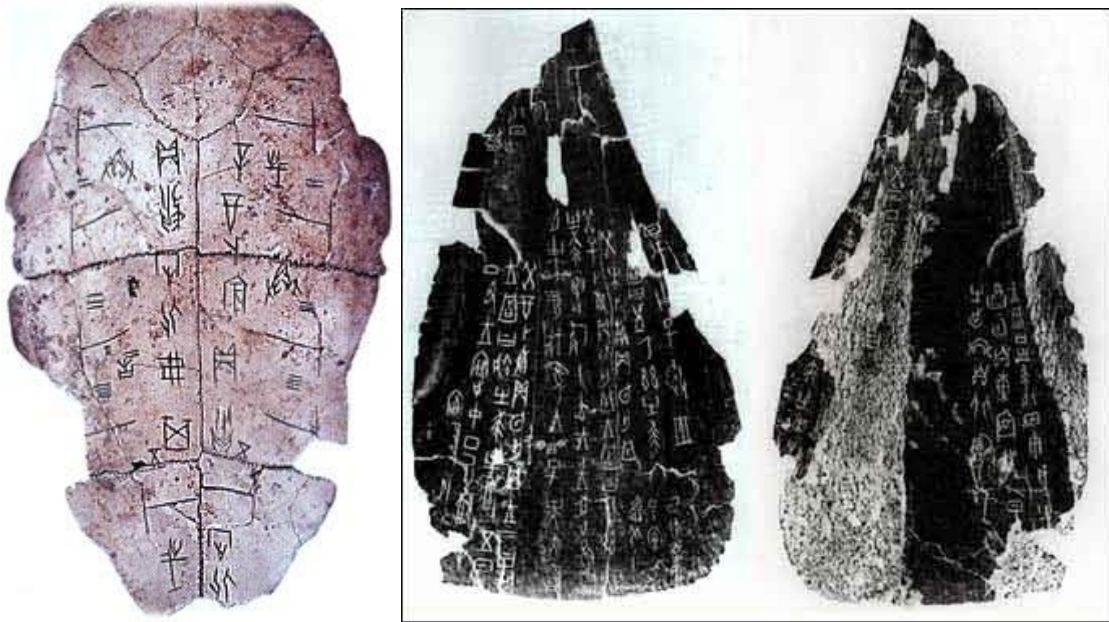


그림 1 과 2.

# 太上人鳥山真形圖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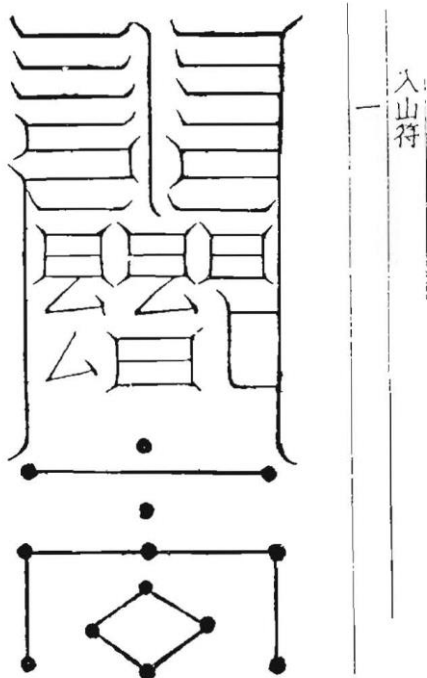


그림 4



靑玄破鄧都符



太乙元君鍊身符

그림 5